

# WTO 체제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권 용 대  
(權容大)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I. 서 언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농산물 무역협정이 1995년도 부터 발효되어 새로운 WTO체제가 발족하면서 우리 농업은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국경보호조치를 전제로한 기존의 농정이 개방농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농산물 수입자제를 금지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게 되고 해외 농산물과의 치열한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시장개방화가 가속화 될 것이다. 앞으로 시장개방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산업적 기능이 사라지느냐 아니면 경쟁력있는 신농업국으로 발전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정당국은 중장기적인 농어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2004년까지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어민의 생활개선과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농업구조 개선정책으로서 지역농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시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가차원의 농업은 지역별로 입지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선행되어야 실질적인 구조개선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정의 지방화와 농업의 지역특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의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충남지역은 표고 100m이하의 평야지가 59%로서 농경지의 비율이 38%이고 금강, 사

교천, 미호천 등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양호한 농업자원 때문에 전통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선진 농도로서 지역경제의 구심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WTO체제의 출범으로 농업비중이 높은 충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심각하게 개방화의 피해를 받아 농업의 존립기반 조차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농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핵심산업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개발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UR농산물 협정이후 우리 농업전반과 충남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농업의 국제화라는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여 지역농업으로서의 충남농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UR 농산물 무역협정과 충남농업의 전망

### 1. UR 농산물 무역협정의 내용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제8차 다자간 협상으로 시작된 UR협상은 7년이라는 장기에 걸친 협상끝에 1993년 12월 15일에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UR협상의 15개 타결분야중에서 각국간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농산물 무역협상도 완결됨에 따라 세계 농산물시장도 전면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개정된 농산물 무역협정은 세계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및 불확실성의 완화, 무역제한 조

치 및 왜곡조치의 시정, 불평등한 국내보호정책의 철폐 등을 위한 규정 및 원칙을 제정하여 농산물무역의 자유화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수입장벽의 철폐, 농산물 생산과 무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농업보조금의 감축, 그리고 인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농산품에 대한 동식물 검역제도의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제도에 대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 1) 시장접근(market access)

시장접근(국경보호조치)분야를 보면 포괄적인 관세화에 기초한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s)의 설정 및 삭감,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과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의 설정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관세화 방안은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없애는 대신 1986-1988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의 가격격차를 관세로 전환하여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상당치는 1995년부터 6년(개도국은 10년)간에 걸쳐 농산물 전체로는 평균36%(개도국은 24%), 어떤 품목이든 최소한 15%(개도국은 10%)는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이고 비교역적 기능을 가지는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 시행을 6년간(개도국은 10년) 유예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의 경우 1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받는 특례를 인정받고 있으나 유예기간 중에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여 개방초년도인 1995년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본 관세율인 5%로 최소 수입물량인 51,307톤을 수입하고 2004년까지 205,228톤을 수입하게 되어있다.

한편 이미 수입자유화된 품목은 관세인하를 통하여 농산물수입 자유화를 확대하여야 한다. 관세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 즉 관세상당치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최소시장 개방과 현행 수준의 수입보장량에 의거 수입을 개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특별법에 의하여 수입제한중인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종우, 팥, 녹두, 땅콩, 홍삼 등 111개 농산물은 관세상당치를 10년동안 10%감축하도록 하고 또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사과, 포도, 꿀, 밤 등 95개의 아직 자유화 되지 않은 BOP 적용대상 농산물은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이들 품목도 이행기간중에 10%씩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최소시장 개방품목은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이 되는 농산물에 해당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리, 감자, 고구마등 수입비중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은 최초 이행년도에는 소비량의 3% 수준까지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최종 이행연도에 가서는 5%로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옥수수, 콩등 현재 수입량이 국내 소비의 3%를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현행시장

접근품목으로서 현행의 수입 물량을 보장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수입이 이미 자유화된 1,092개의 농산물은 최소시장접근이나 현행시장접근대상 품목이 아니고 다만 관세율을 품목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2)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국내 보조분야에 있어서는 농업보조를 줄여야 하는 감축 대상정책과 보조금지급이 계속 가능한 허용 대상정책으로 분류하여 농업에 대한 국내보조를 규제하고 있다. 시장가격지지, 생산증대를 가져오는 생산요소보조(예: 특정품목을 대상으로하는 농용자재, 저리자금지원) 및 농가에 대한 직접보상등은 감축대상정책이 된다. 이경우 1986-1988년 기준으로 농업보호 총량측정수단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으로 표시된 농업보조액을 6년간(개도국은 10년)간 20%(개도국은 13.3%) 감축해야 하는데 개도국인 우리나라는 10년간 13.3%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감축대상정책이라 할지라도 농업보조액이 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이하일 경우에는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 허용대상정책은 보조정책이 무역질서를 해치지 않고 생산증대 효과가 없어야 한다.

허용대상 정책에는 병충해 방제, 교육훈련, 지도사업, 하부구조개선, 학교급식지원 등 정부 서비스사업, 생산증대 효과가 없는 직접소득보조, 탈농지원, 휴경보상, 구조조정 투자보조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개도국 우대지원 사

업으로 일반적 투자보조와 영세농에 대한 영농자재보조를 허용하고 있다.

### 3)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수출경쟁분야에 있어서는 수출보조의 감축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정부의 직접보조, 정부 및 정부 대행기관에 의한 저가수출, 가공수출품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수출 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의 보조, 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운송비지원 등의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보조금 감축대상 품목은 밀, 사료곡물, 쌀, 낙농품, 육류, 과채류, 담배, 면화 등 22개 인데 1986년-90년을 기준으로 보조대상 물량기준 21%, 금액기준으로 36%를 감축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출과 직접 관련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분야의 규정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농산물 수출전략의 수립초기에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4) 위생 및 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UR 농산물 협정에서는 각국의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규제가 수입규제로 이용되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의 원칙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시행해 왔던 각국의 위생검역 조치들을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국제무역사무국, 국제식물 보호 규약 등 관련 국제조약과 기구의 기준과 규정

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2. 지역 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존의 GATT체제가 WTO체제로 개편되어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관세화 조치가 시행되면 세계 농산물시장 가격이 그대로 국내 농업에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농업에 있어서도 개방화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UR 협상결과가 농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표1>에서 보면 1992년 현재 농림수산업의 GNP비중은 7.8%인데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로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업 취업자의 비중은 1992년 16%에서 2001년 7.9%로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비중도 1992년 13.1%에서 2001년 5.1%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에 농가인구와 농가호수가 줄어들면서 호당 경지면적은 1992년의 1.26ha에서 2001년에는 1.87ha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의 농업도 UR협상이후 해외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농가인구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적인 농업통계에 근거하여 UR협상이 이 지역의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면 지역총생산 비중은 1991년도의 27.4%에서 2001년에는 9.6%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리고 농가인구는 2001년에 가서는 319천명

〈표 1〉 UR이후 충남농업의 총량지표 변화

구 분	1991년		1995년		2001년	
	충 남	전 국	충 남	전 국	충 남	전 국
농림수산업비중(%)	27.4	8.0	18.8	5.5	9.6	2.8
농림수산업취업자(천명)	501	3,103	434	2,688	315	1,948
(비중,%)	-	(16.7)	-	(13.1)	-	(7.9)
농가인구(천명)	798	6,068	629	4,787	319	2,423
(비중,%)	(42.4)	(14.0)	(27.4)	(10.7)	(12.6)	(5.1)
농가호수	216	1,702	190	1,497	121	950
농지면적(천ha)	270	2,091	264	1,992	249	1,779
호당경지면적(ha)	1.25	1.23	1.39	1.33	2.06	1.87

자료 : 통계청, 도내총생산, 1993.; 충청남도, 농어촌발전계획(1992-2001), 199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 1994. 1.; 농협중앙회, UR이후 농업 농촌대책, 1994.1.

으로 줄어들어 도내 총인구의 12.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호수도 2001년에 가서는 121천호로 감소하며 호당 경지면적은 2.06ha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영농규모의 확대는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할 뿐 대부분의 농가는 소규모의 경지면적하에서 가족경영 중심의 소농 방식으로 영농을 할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더구나 농지 소유자가 토지자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농지의 유희화 및 전용을 추구할 경우 식부면적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게 된다.

한편 동기간에 충남의 농가가 입게 되는 소득 피해액은 〈표 2〉에서 8,046억원에 달하고 농가인구도 매년 3%씩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쌀의 경우 피해액이 978억원으로 나타나 예상보다 적으나 시장개방으로 전국 생

산비중이 높은 반면에 경쟁력이 취약한 마늘의 농가소득 감소액이 355억원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절대규모액에서는 소와 돼지의 사육농가의 소득 감소폭이 2,825억원과 3,174억원으로 가장 크게 소득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돼지의 사육마리수가 경기 다음으로 많으며 소는 경북, 전남, 경남 다음으로 사육비중이 높으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사육규모 감소와 가격하락이 발생할때 축산농가의 절대 피해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 III. 충남농업의 발전방향

충남의 농업을 위와 같이 전망할때 UR이후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충남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심체로서

〈표 2〉 URO이후 충남지역 농가의 소득감소액(1995-2001)

(단위: 톤, 억원)

구 분	1992년도	전국비중	1992년도	농가소득
	생 산 량	(%)	생 산 액	피 해 액
쌀	843,686	15.8	10,623	978
보리	1,474	0.4	12	18
옥수수	909	1.0	2	14
콩	11,082	6.3	126	61
감자	18,683	2.6	79	100
고구마	13,054	4.1	38	108
고추	13,748	8.0	833	161
마늘	47,026	10.1	767	355
참깨	2,982	10.3	209	96
쇠고기	13,343	13.4	1,668	2,825
돼지고기	105,828	17.6	2,201	3,174
닭고기	31,017	13.4	648	152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통계연보, 1993.

주: 충남지역통계는 필자의 추정치임.

지역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음을 볼때 국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체제로의 재편은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충남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경쟁력이 있는 지역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역 특화농업의 육성

농업은 지역적으로 기후, 토양 등의 차이에 따라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와 품질이 다양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지역에 따라

다른 자연조건의 차이가 지역농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농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이 위치한 산업 입지적인 조건이 지역농업의 발전에 점차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정 농산물의 종류와 생산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농업생산지와 연계된 소비시장과의 거리, 소비자들의 선호도, 소득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리적인 입지와 더불어 최근에는 첨단 농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장, 가공, 수송 등 유통조성기능을 담당하는 농업기술도 지역농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의 지역적인 입지조건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입지적 요인에 따라서 지역농업은 지리적, 자연적 특성을 토대로 하여 비농업 분야와의 밀접한 연관효과를 추구하면서 상호 연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농촌의 지역화 시대에 맞는 산업 및 농업발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과 관련하여 충남의 전반적인 개발환경을 보면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환경해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과밀포화상태에 있는 서울경제권을 배후에서 흡수하여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충남의 농업은 입지 환경에 따라 발전 단계가 상이한데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수도권의 발전에 영향을 받아 2,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농업도 수도권의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근교농업지역으로 조성되고 있다. 동남부지역인 연기, 금산, 공주, 논산은 대전권의 영향을 받고 있고 서남부 지역인 부여와 서천은 전주, 군산 시장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반면에 주변 도시경제권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중서부 내륙지역인 홍성, 청양, 보령등은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그러므로 충남농업의 발전은 주변 경제권의 영향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지역농업의 개발에 있어서 자연 환경적인 여건과 함께 경제적인 입지조건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요인을 반영하여 작목별 특화정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충남지역의 농업을 시군별로 구분하여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목의 특화계수는 <표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미작 중심의 경종작물, 고추, 마늘, 김장채소 등의 농산물과 한우, 양돈 등이 충남지역의 주생산물로서 거의 전지역에서 공통된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경종작물은 쌀을 제외하고 특화계수가 낮은데 이는 충남지역의 담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쌀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상업적 농산물인 딸기와 토마토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특화계수도 각각 2.122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충남의 농업이 수도권 소비시장의 시장출하를 목표로 하는 지역농업의 특화현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한우와 닭은 전국의 평균치에 가까우나 돼지의 사육비중은 특화계수가 1.26으로 높는데 이러한 현상은 역시 수도권시장에 인접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작목은 전국 각지에서도 생산되는 주 소득작목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의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 및 유통정보와 판매시장의 우위확보가 지역농업 활성화의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에서 특화계수가 높아 비교우위가 있고 시장개방 이후에도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품목으로는 사과, 배 등 과일과 작물의 특성상 신선도유지, 수송에 문제가 있는 무우, 배추 등 채소류와 돼지, 닭 등 축산물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표 3〉 품목별 특화계수(1991년)

(단위: ha, 마리)

구 분	식 부 면 적		특 화 계 수
	총 남	전 국	
쌀	180,984	1,208,455	1.16
맥류	901	127,163	0.05
콩	9,608	119,066	0.62
고구마	929	17,313	0.41
감자	615	21,123	0.23
고추	7,219	73,406	0.76
마늘	7,071	49,160	1.11
참깨	6,265	57,717	0.84
딸기	1,038	4,003	2.00
토마토	305	1,932	1.22
사과	4,949	50,595	0.76
배	1,561	9,495	1.27
한우	237,370	1,773,000	0.96
돼지	880,601	5,046,000	1.26
닭	9,783,967	74,855,000	0.94
유우	65,608	496,000	0.95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농어촌개발계획, 1993. 3.

있다. 그러나 이들 유망 품목이 미래에도 경쟁력이 유지 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시장 점유율의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술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추, 인삼, 한우고기 등 가격 경쟁력이 약한 품목도 맛과 품질의 차별화로 대처해 나가고 쌀, 마늘, 양파 등은 생산비 절감에 의하여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 판매시장의 범위를 국내시장 중심에서 수출시장까지를 포함하여 범위를 넓혀 나

가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국내에서도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농산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의 판매시장은 국내수요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 국제 농산물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출가능성을 검토하여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영농형태의 다원화에 따른 농정 지원체계의 정비

충남의 농가인구가 매년 3.5% 줄어들고 있고 1991년 현재 55세 이상인 고령농민이 영농주의 47.7%이어서 향후 10년 이내에 영농의 형태가 종래와는 다르게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농가형태는 한계농, 부업농, 전업농, 기업농 등으로 다원화되고 영농방식도 미작중심의 단일 작부체계에서 원예, 축산 등으로 다양화 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농가형태와 영농유형에 따라 차별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역농업의 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현재 작성중인 개별농가에 대한 농가대장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영농 유형별로 지원을 펴나가는데 기본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농가의 형태를 60여가지 이상으로 구분하고 농가의 유형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농가중에서 경영능력이 있고 농업기술이 앞선 전업형 농가를 발굴하여 지역농업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나머지 고령농업형, 전원형, 관광농업형, 휴양농업형 등 부업형태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방식을 차별화, 다양화 하도록 한다.

앞으로 농지소유의 자유화가 진척 됨에 따라 비농민의 토지소유가 증가 하면서 경영수익보다는 휴양적인 차원에서 농사를 짓는 소규모 부업농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부업농을 포함하여 지역전체의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지이용계획에 대한 지역농민의 공동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업생산모형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충남 농촌의 발전전략은 장기적인 구조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의 산업이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의 자연적 사회경제적인 입지조건을 분석한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 및 관련산업의 최적입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산업의 공간 배치계획에서 종합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적정 산업구조 및 고용규모를 추정하며 어느 지역에 어떠한 규모로 배치되어야 하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각 부문별 투자가 지역경제의 산업, 소득,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평가결과에 의거 지역의 적정 투자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3. 지역특화 농업기술의 개발

농업에서도 기술이 농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특히 첨단 유전공학, 전자공학기술이 농업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수량증산 위주의 농산물 생산기술은 시장경쟁력을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장식 농업, 유전공학을 이용한 고품질 농사기법, 농산물의 유통을 현대화 시키는 첨단 유통기술의 등장 등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습득한 농민만이 농업 경쟁시대를 살아 남게 될 것이다.

향후의 기술개발 추세로 보아 농업의 활로는 토지자원, 기후, 노동력 보다는 연구개발, 교육, 기술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과 인적자원의 배분능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어떻게 상업적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하며 판로확보를 위한 시장개척 노력에 농민이 얼마나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농업 기술을 수용하느냐가 농업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농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기술의 현수준을 보면 보급률이 포화단계에 있고 지역의 기후, 토양환경에 부적합한 기술을 농가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순 모방적 기술은 농업의 개방화와 상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농업을 실현하는데는 한계가 있게 된다.

농업기술은 기본적으로 생물을 다루는 유기 기술이고 지역의 자연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고 비교우위가 있는 농산물에 대한 농업 기술분야를 선별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개발의 경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농업도 지역적으로 특화되는 추세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단위로 자체적인 농업기술 연구개발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품질개선, 단위면적당 수확증대, 비용절감적인 재배법의 개발 등 생산기술 뿐만 아니라 수송, 저장 등 유통기술의 개선, 전산정보망을 이용한 농업경영기법과 영농정보 시스템의 개발, 농자재 관련 기술의 개발에 대한 분야도 함께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경영계획과 첨단 농업기술의 전파와 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농가까지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역농업에 관련된 최신정보의 수집, 가공, 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농민들이 신속 정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생산자 조직과 핵심적인 농업인력의 양성

우리나라와 같이 소규모 영세농이 주축을 이루는 농업구조 하에서는 개별농가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품목별로 조직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을 실현하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2,000여개의 작목반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의 핵심조직이 되도록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목반이 실질적인 생산자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역내의 토지, 농기계, 농용시설 등 농업생산자원을 조직적으로 결집시켜 협업농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품질의 균등화, 공동기술개발, 공동작업, 공동출하 등에 대해서는 지역농민들이 농업경영 공동체를 결성하여 기업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품목별로 생산물량의 수급조정을 위하여 지역의 생산자 조직간에 협의의 조정할 수 있도록 광역생산자 조합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민들간에 토지, 농기계, 농용시설의 매매와 임차를 활성화시킴으로서 탈농의사가 있는 농민들의 전업을 원활하게 하고 독립된 영농법인체를 세우고자 하는 사업가적 농민들에게는 자기 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자 조직이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의 생산자 단체가 전업형 농가들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매개체로서 기능하게 하며, 능력이 있는 농민들에게는 독립된 법인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영농의 발전단계가 성숙한 지역을 보면 농민들의 연령이 젊고 첨단 농업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리더가 선도농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이 재배기술과 시장동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핵심적인 선도농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상업농 시대에는 지역농업의 성패가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달렸으므로 혁신지향적 농가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농업분야에도 유능한 농민들이 농사를 평생사업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참

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N. 결 론

UR 농산물 무역협정이 1995년 부터 발효되어, 향후 농산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 우리 농업은 큰 파급영향을 받게 되고 농업생산과 농가인구 비중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충남 지역은 동 기간중에 농가 피해액이 8,04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충남의 농가인구는 2001년에는 319천명으로 감소하고 농가호수도 10만 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업으로서의 충남농업도 대내외적인 농업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농업을 시장지향적 구조로 전환하고 충남농업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대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의 생산비중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의 판매범위를 넓혀 국내시장 뿐 아니라 수출시장까지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령의 한계농, 부업농, 전업농, 기업농 등으로 영농형태가 다원화 하여 감에 따라 농정의 지원체제도 새롭게 정비하여 영농 유형

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미작증식의 단순영농에서 원예, 축산 등 영농구조가 다양화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비교우위가 높은 작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농업유형별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개발계획시 도내의 가용 농경지 면적과 입지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품목별로 적정영농규모, 인구, 농업생산액을 산출하여 종합적 개발이 되도록 한다.

셋째, 농업기술은 지역의 기후, 토양환경에 좌우되므로 지역실정에 맞는 현장기술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구하여 기술의 특화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농민들의 자생적인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농업을 이끌고 나갈 유능한 농업인력을 양성하고 생산농가의 지역별 조직화를 통하여 생산자 조직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산지 작목반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품목별 전문조합으로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핵심조직으로 키운다.

이상과 같이 UR 농산물 무역협정이 국내농업과 충남지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충남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충남농업은 양호한 입지여건 때문에 역으로 국내외의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농업의 구조개선이 이루어 질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정의 지역화 및 농업의 특화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충남의 입지

적인 특성을 살린 지역농업의 개발은 이 지역농업이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봉순,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농업구조개선의 방향,” UR 농산물협상이후의 한국농업의 진로 심포지엄, 서울대학교농과대학 농업개발연구소, 1991.
- 권용대, “충남권 산업개발에 대응한 지역농업의 발전방향,” 지역개발논총 제5집,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3.
- \_\_\_\_\_, “UR이후 충남농업의 전망과 대응방안” 농업과학연구, 21권 2호.
- 김철호 · 권용대, 충남지역 농산물의 수출증대 전략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충청남도, 1990.
- 경제기획원,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 1993.
- 농림수산부, 농업통상소식 35호, 1993. 10.
- \_\_\_\_\_, 농업통상소식 37호, 1994. 1.
- \_\_\_\_\_, 농업통상소식 38호, 1994. 3.
- 농협중앙회, UR이후의 농업 · 농촌대책, 1994.
- \_\_\_\_\_, 농촌구조개선과 지역농업개발 세미나 결과 보고서, 1993. 3.
- 농협중앙회 해외협력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1994. 2.
- 농협중앙회 충남도지회, 충남 지역농업 개발방향과 농민숙원사업, 1991. 3.

- 박정근·소순렬, “전북농업생산의 특성과 발전 방향,” 농업경제연구, 30집, 1989. 12.
- 신용인·권용대, 주산단지 작목반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 대산농촌문화재단 보고서, 1994. 5.
- 이동호와 3인, “전북농촌지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21권 1호, 1994.
- 최규호·최종민, “전북지역농업의 구조변화와 발전방향,” 농업정책연구, 18권 2호, 1991. 12.
-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 1989.
- 충남농촌진흥원, 92-94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 1991.
- \_\_\_\_\_, 충청남도 농어촌개발계획(1992-2001), 199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RE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분석, 1993. 12.
- \_\_\_\_\_, 농정의 여건과 대응방안, 1994. 1.
- \_\_\_\_\_, 농업여건변화와 농촌지역의 산업구조 개편방안, 1994. 3.